

## 뉴비틀 해체해 스타덤 오른 오르테가 “우리 발밑, 지층이 궁금해요”

이영란 선임 기자

2014-04-21 13:55

“저는 우리가 밟고 있는 발밑이 궁금해요. 지층 밑이 어떤 모습일까 종종 생각하곤 하죠. 그래서 지층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보며 지층변화를 연구했어요. 정말 흥미롭더라고요. 물론 지질학자가 아니라 대단한 건 아니지만 땅 아래 수백만년, 수천만년 [역사](#)가 있을텐데 그 세계를 표현하고 싶었어요. 지층도 끝없이 움직이고, 숨쉬고 있으니까요”

[멕시코](#) 출신의 [작가](#) 다미안 오르테가(47)는 좀 특별한 아티스트다. 어떤 형태(피규어)를 구현하는 작업 보다,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데 더 집중한다.

돌, [콘크리트](#), [벽돌](#), [철근](#), [골판지](#) 등 버려지거나 이제는 쓰임새를 다한 주변 재료들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. 그리곤 이를 집적하거나 재해석해 독특한 작품을 제작한다.



서울 삼청로 54 번지(소격동)의 국제갤러리(회장 이현숙)가 비(非)미술적 재료를 다루는 작가 다미안 오르테가의 국내 첫 개인전을 마련했다. '다미안 오르테가, Reading Landscapes'라 명명된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신작 설치작품과 입체작품이 출품됐다.

조각 작업으로 잘 알려진 그는 일상 사물에 숨겨진 특성과 잠재성을 드러내길 즐긴다. 그것들이 품고 있는 사회적 함의와 유머를 공학적 테크놀로지로 혼합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질문을 던진다. 즉 물질성과 형상, 기능과 쓸모 없음을 주제로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또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.



국제갤러리 K3 관 중앙에 설치된 지구 형상의 작품 'Viaje al centro de la tierra: penetrable'은 이번 전시의 핵이다. 전시의 전체 개념을 집약해 보여주는 작업으로, 오늘날 지구인들이 살고 있는 '세계의 축'을 드러내고 있다. 작가는 1 mm~5 cm 크기의 수많은 돌맹이를 투명한 실에 매달아 둥근 구(球)로 만들어, 지구의 핵과 지층을 조형적으로 표현했다. 오르테가의 이 '매달린 조각'은 엔지니어용 설계도의 조각적 버전처럼 보이며,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땅 밑을 성찰하게 만든다.

극장의 배우였던 부친과 초등학교 교사였던 모친 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랐던 오르테가는 한동안 멕시코 신문에 정치만화 등을 연재했던 카투니스트 출신이다. 만화와 미술작업은 매우 다를 수 있으나 나름의 시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고 한 그는 "신문사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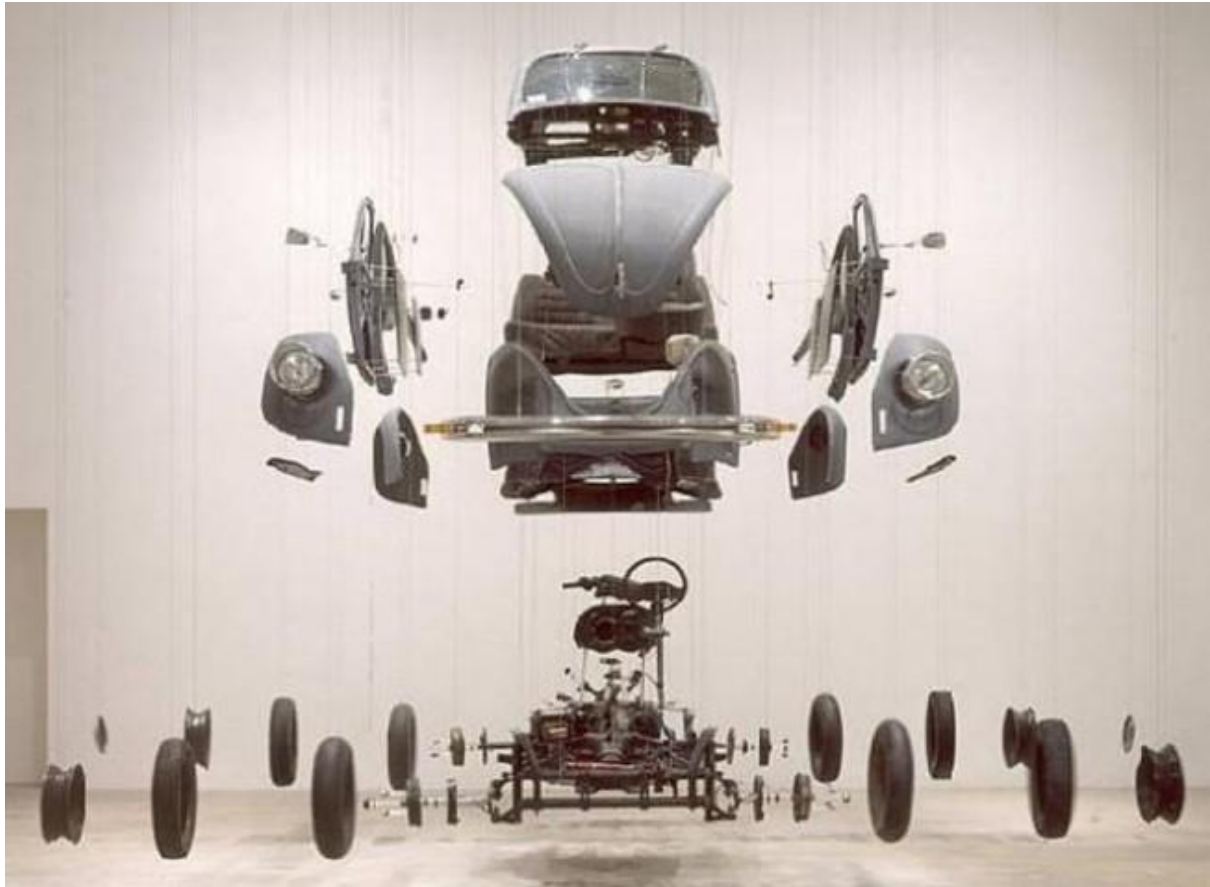
일하며 느낀 점이 많다. 오늘 매우 중요한 사건들 또한 몇시간, 며칠만 지나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다. 오늘의 핫한 뉴스가 담겨 너도나도 보고 싶어하는 신문도 잠시 후면 종이쪼가리가 되는 걸 목도했다. 바로 그런 생성과 [소멸](#)의 과정은 지금 내 작업의 뿌리가 됐다"고 했다.



이후 오르테가는 남미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인 가브리엘 오로츠코(Gabriel Orozco)와 프란시스 앨리스(Francis Alys)의 영향을 받았다. 한 때 오로츠코의 작업실에서 그의 [프로젝트](#)에 참여하기도 했다. 이어 비영리 전시공간 '아르테 44'를 통해 본격적인 작업활동을 시작했다. 지금 그는 동시대 멕시코 [현대미술](#)을 대표하는 주요작가로 전세계를 [무대](#)로 활동 중이다.

오르테가는 데뷔초 [폴크스바겐의 소형차 '뉴 비틀'](#)을 분해해 차량 부품을 천장에 도면처럼 매달아 큰 화제를 모았다. 'Cosmic Thing'이라는 제목의 이 작업은 일상의 사물을 해체해 마치 분해도처럼 그 요소들을 재구축한 것으로, 그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다. 일상용품의 본질과 인간의 관계를 색다르게 해부한 작업을 통해 오르테가는 서구 미술계가 주목하는 작가로 부상했다.

---



작가는 "멕시코에서는 뉴 비틀이 [자동차](#)의 아이콘으로 꼽힐 정도로 아주 중요한 차(車)다. 나도 낡은 뉴 비틀이 있었는데, 처음엔 그것에 페인팅을 해봤다. 그런데 [그림](#)이 영 맘에 들지 않아 [페인트](#)를 지우기 위해 산을 부어버렸다. 그리곤 그 페인트 덩어리를 긁어버렸는데, 내 작업실 여기저기에 아직도 그 덩어리가 남아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 이어 "카투니스트로 정규교육을 못받았던 나는 나름대로 책도 보고, [레슨](#)도 받으며 [다이아](#)그램에 관심을 갖게 됐다. 그러다가 '뉴 비틀을 해체해 분해도를 만들면 어떨까'하는 생각이 들었고, 이를 해체해 그 부품들을 공중에 매달게 됐다"고 했다. 이 작업이 바로 'Cosmic Thing'으로, 이후 오르테가 작업의 근간이 되기에 이른다.

작가는 이번 서울전시에 크고 작은 돌들을 탐처럼 수직으로 쌓아올린 작품과 낡은 벽돌과 철근을 지층처럼 쌓아올린 설치작품을 선보인다.

또 자신이 받았던 각종 편지 [봉투](#)며 [영수증](#), 골판지를 뭉쳐 이를 덩어리로 응축시킨 오브제도 출품했다. 마치 커다란 [달걀](#)처럼 뭉쳐진 오브제는 절반을 갈라 전시되고 있다. [종이봉투](#)와 골판지, 영수증이 켜켜이 집적된 'Geoda'라는 작품은 인간이 일상에서 주고받았던 기록이 마치 땅의 화석처럼, 지층처럼 변모해 시간의 깊은 궤적을 흥미롭게 드러내고 있다. 전시는 5월 11일까지. 02-735-8449.

---

**URL:** <http://biz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40421000873>